

① 경북도서관 1월 북큐레이션

다시 읽고 싶은 문장

시간이 지나도 생각나는 책 속 문장들을 소개합니다.
새해의 시작을 아름다운 문장들과 함께하며
사색에 잠겨 보세요.



태도에 관하여

임경선



(p 52)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연 만큼 딱 그만큼만 나도

마음을 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사랑에서 취해야 할 단 하나의 태도가 있다면

나 자신에게는 '진실함', 상대한테는 '관대함'인 것 같다.

태도에 관하여

나를 살아가게 하는 가치들

임경선

杜甫詩選

02

일반



두보 시선

두보

(p 95) 좋은 비 시절을 알아

봄을 맞아 생기를 주네

바람결에 몰래 밤에 찾아들어

만물을 적시네, 가늘어 소리도 없이

두보 시선

두보(杜甫)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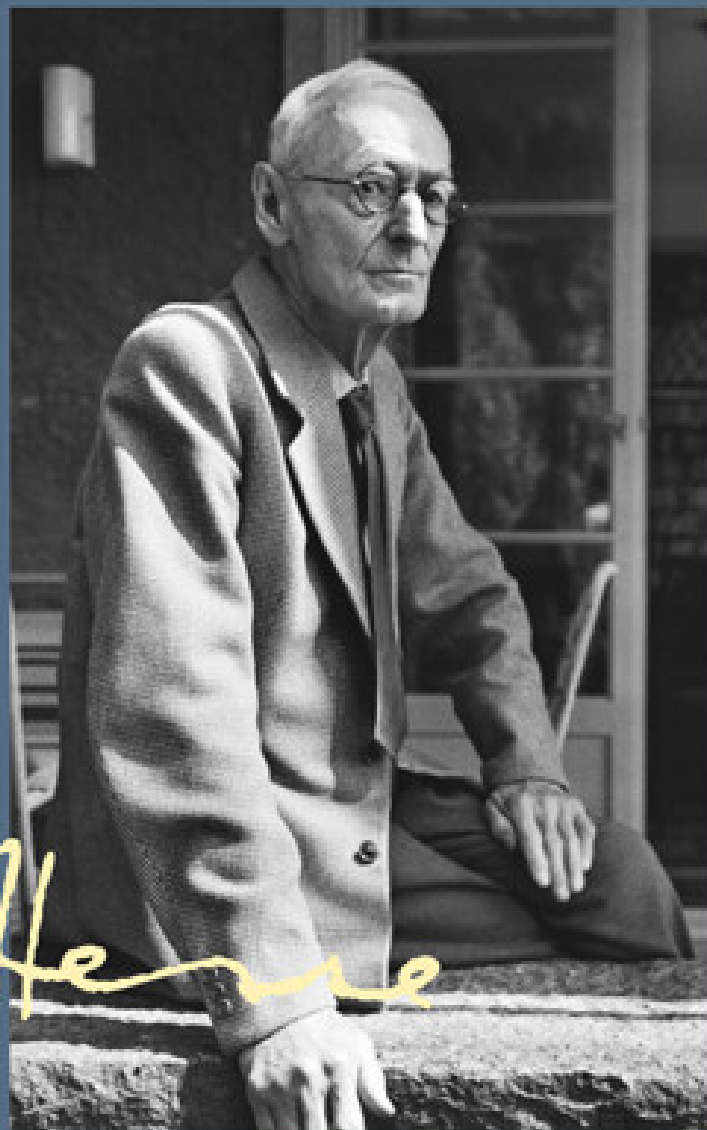
김익정 옮김

지식을만드는지식

그리움이

나를 밀고
간다

지상의 아름다움과
삶의 경이로움에 대하여



헤르만 헤세 지음 | 두행숙 옮김

03

일반



그리움이 나를 밀고 간다

헤르만 헤세

(p 166) (어린 시절의) 영상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해하는
어린이의 선한 눈빛으로 그 영상들을
처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최
감
수

에
세
이

오랜 여행자가 들려주는 삶의 매혹과 슬픔 그리고 비밀
“다들 외롭잖아, 안 그런척 할 뿐이지”

밤의 공항에서

최감수



(p 99) 거창한 것을 이루는 것도 좋지만
사소한 것에서 무언가를 찾는 기쁨도
그 크기가 결코 작은 건 아니더군요.
만족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입니다.

80대 독일 국민 작가의 무심한 듯 다정한 문장들

나로 늙어간다는 것

엘케 하이덴라이히 지음
유영미 옮김

“나는 친구들과 긴긴밤을 보내면서 주름을 얻었다.
많이 웃고, 많이 사랑하면서!”

나이 듦에 대한 굉장히 솔직하지만 매우 아름답고 간결한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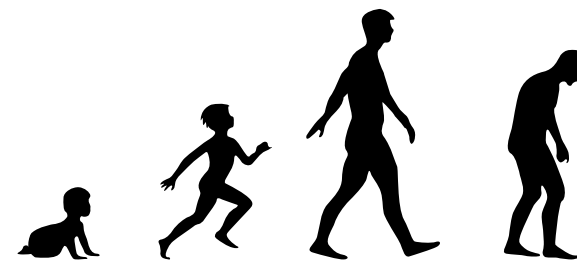


북라이프

05

일반

나로 늙어간다는 것



엘케 하이덴라이히

(p 43) 인생은 실수의 연속이며 그 모든 실수가
끝나면 인생도 끝난다... 실수 뒤에도 삶은 계속되고
언제나 다른 길과 출구가 있다. 그러니 때로는 모든 것
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배웠다.

풀꽃같이 예쁜 말

나태주



(p 26) 슬픈 마음은 때때로 사람의 마음을 착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자신의 주위를 돌아보게도 해
줍니다. 시를 쓰게 하거나 음악을 듣게 하거나 문득
여행을 떠나게 하는 마음이 또 슬픈 마음이에요.



철학 고양이 소피

차이즈친



(p 237) 우리가 진짜 나 자신이 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은 꼭 필요해. 다른 사람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이니까.



하늘을 달리는 아이

제리 스피넬리



(p 67) 그는 이른 아침을 사랑했다. ...가장 이른 시각
에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조차 아직도 집 어둠 속에서
자고 있었다. 온 세상은 그가 침실 바닥에서 깨어나기
직전에 창조된 것 같았다.





Les Contes d'Alphonse Daudet
별 마지막 수업
알퐁스 도데 단편선
알퐁스 도데 지음 | 이효숙 옮김

아동

별·마지막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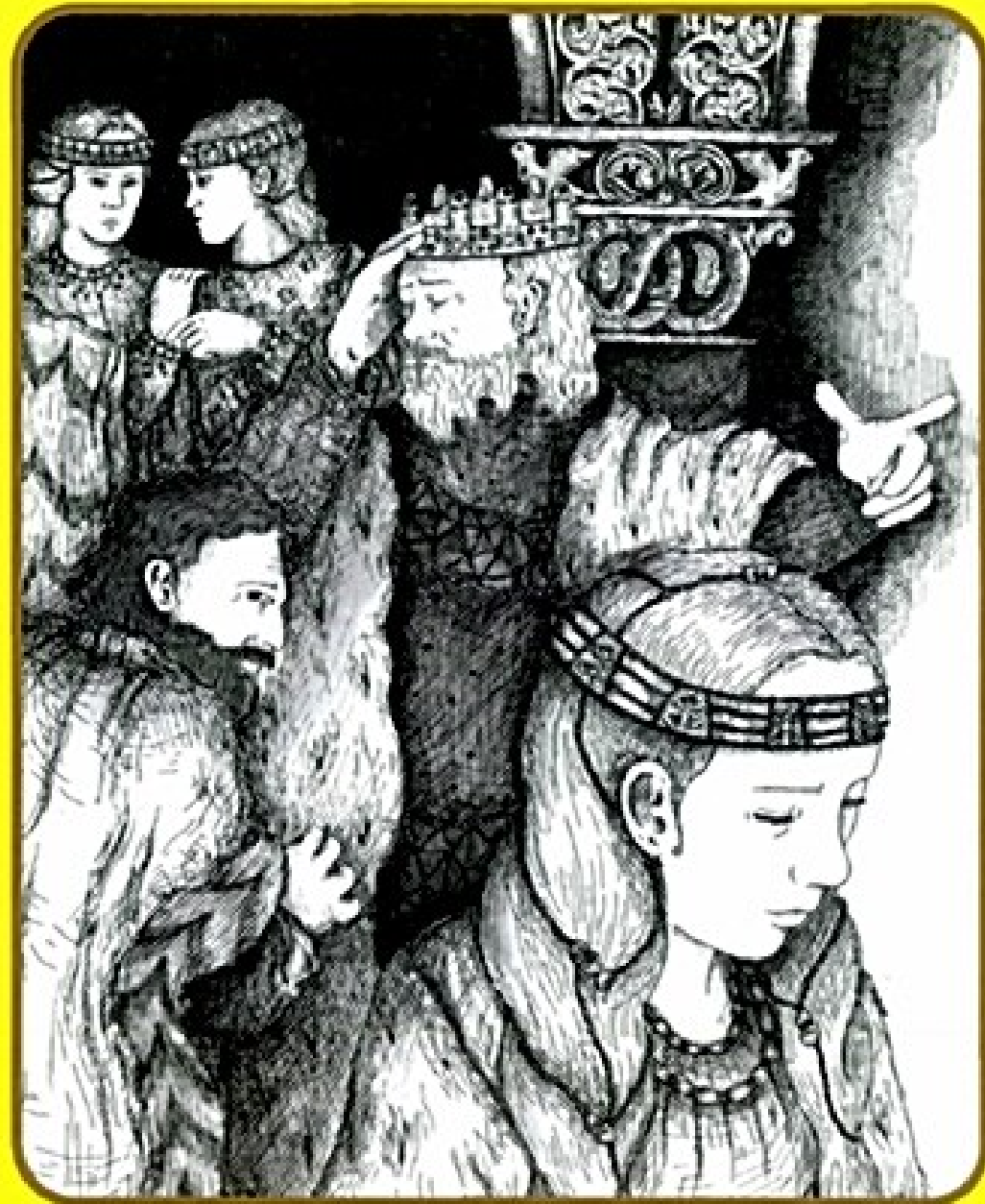
알퐁스 도데



(p 98) 선생님은 "민족이 노예로 전락
하더라도 그 언어를 잘 붙잡아 두고 있는 한
열쇠를 쥐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셰익스피어 이야기

윌리엄 셰익스피어 원작 | 에디스 네즈빗 다시 씀 | 장한순 그림 | 최은숙 옮김



10

아동

한권으로 시작하는 셰익스피어 이야기



윌리엄 셰익스피어

(p 157) 나에 대해 있는 그대로 말해 주시오.
훌륭하지도 나쁘지도 않았다고. 진주 중의
진주를 멀리 던져 버렸다고 말해 주시오.
메마른 눈으로 울고 있다고 말해 주시오.

